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는 스마트 상근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대학으로 가는 길이라는 강의를 보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이 있겠죠. 다 실력에 맞는 대학을요.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 자신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라면 전략 그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능을  
잘 보거나 내신이 정말 특출나게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움 없이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실력보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뭔가 체계적인 전략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사실 누구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강남인강에서 이번에 새롭게 만든 대학으로 가는 길 강의

꼭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전략 꼭 찾아서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학으로 가는 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제목이 뭐죠? 수능의 위력 알아보지 마라.  
이겁니다. 선생님, 수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누가

알봐요? 라고 하는 아직 이렇게 꿈이 창창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1, 고2 그리고

고3에 들어갔을 때 이 수능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요. 점점  
기피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수능장에 가서도요. 자신의 실력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능장에 아예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수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수능의  
위력은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진 않겠죠.  
수능이라고 하는 건 물론 예전과 비교했을 때 그 위력은요.

엄청나게 반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능이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한다면 정말로 엄청난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일종의  
수능이라고 하는 건요.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입시라고 하는  
전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일종의 특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특수 아이템 갖추지 못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저 친구는 이 수능이라고 하는 굉장히

멋진 아이템을 들고 갑니다. 이 멋진 아이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겠죠. 게임에서도 똑같아요. 굉장히 멋진 아이템, 굉장히

희귀 아이템을 들고 있는 친구가 자기의 레벨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쌓게 되고요. 그 결과 많은 포인트를 얻게 되는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특히 고1 같은 경우에는

내신도 신경 써야 되고 각종 학교 활동 그리고 논술을 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 공부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수능이라는 것까지 하시면 정말로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점ですよ. 헤쳐나가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지났을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대학을 다니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수능의 위력 알아보지 마라. 지금부터

수능의 위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통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고1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은 중3일

수도 있어요. 일단 여러 가지 수능 통지표에 나오는 용어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그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요. 실제 이제 수능 점수를 받았을 때 이런 통지표를 받게 됩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봤었던 그런 학력평가 같은 성적표랑 약간 다르죠. 학력평가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학력평가를 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력평가에 이렇게 단순히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국평균도 나와요. 그렇죠? 전국평균도 나오고 국어 수학, 수학 영어 이렇게 조합이 나왔을 때 자기의 등수가 몇 등인지까지도

나옵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표 그 자체는 굉장히 심플 그 자체예요. 그렇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만

딱 보여줘요. 특히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영역에 나뉘어서 여러분의 실력 즉 점수를요.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표준점수와 백분위와 등급이 뭘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등급입니다. 중학교 때는 등급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는 A부터 E까지라고 하는 성취평가 즉 절대평가로 성적이

매겨졌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이 등급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교과 내신 등급으로 산출이 되죠. 마찬가지로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급으로 산출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등급은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나오고요. 각각의 백분위 즉 퍼센트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게 되는 일종의

상대평가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등급은요. 4%까지 1등급이라고 해요. 자기가 아무리 하나나 2개

틀리더라도 4%에 들지 못하면 1등급 받지 못합니다. 자, 2등급은요. 그다음 단계인 4~11% 즉 7% 정도 가량이

2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3등급은요. 11~23%까지 12%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게 되고요. 점점 4등급, 5등급, 6등급으로

갈수록 비율은 점점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상대평가

체제기 때문에 자기의 점수와 상관없이 등수잖아요. 이 안에

들어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불합리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저번보다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등급은 떨어질 수 있어요. 왜? 내가 오른 것보다 경쟁자들이 오른 등급 폭이

커졌기 때문에 나의 등급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등급은요. 대개 수시의 최저등급으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백분위입니다. 말 그대로 퍼센트로 포함이 되는 건데 자기보다 낮은 학생이 얼마큼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통지표에 나오는 백분위의 의미입니다. 당연히 자기의 밑에 많을수록 좋겠죠. 백분위는요. 등급과는 다르게 점점점

높아질수록 자기한테 유리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고요. 정시에서

대부분 활용할 수 있는 혹은 대학에서 백분위로 선발을 하겠죠.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 일종의 도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준점수인데 표준점수는 약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백분위 같은 경우 딱 나와요. 퍼센트가, 등급도

딱 보기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표준점수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평균을 100으로 보고

자기가 이 평균보다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표준점수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시험 있죠. 과목의 난이도가 만약에 높아요. 즉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기가 잘 봤어요. 그럼 당연히 평균은 밑에 있잖아요.

평균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자기의 점수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어떻습니까? 평균으로부터 자기의 위치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당연히 높은 표준점수를 받게 됩니다. 즉 이 얘기가 뭐냐면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시험을 잘 본 사람의

표준점수는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인서울의 대부분 대학들은요. 백분위 대신에 표준점수를요. 정시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탐구 과목 같은 게 문제가 생기죠. 탐구 과목은요. 국어나 수학처럼 딱 모든

학생들이 보는 건 아니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과목을요. 선택을 해서 보는 게 탐구교과인데 문제는 뭐니까? 탐구교과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많은데 문제는 각 교과별로 문제의 난이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100점을 맞더라도 그 시험이 만약에 쉬웠습니다. 그럼 백분위는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뭐가 떨어져요? 표준점수가

낮아지겠죠. 반면에 자기가 3개 정도 틀렸어요. 그런데 그해 시험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표준점수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즉 뭐니까? 100점 맞은 친구 같은 경우 굉장히 억울하죠. 나는 분명히 100점을

맞았어요. 이게 시험이 쉽든 안 쉽든지 간에 나는 100점을  
맞았던 말이야. 그런데 저 친구는 3개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표준점수로 바꾸다 보니까 100점 맞은 친구의 표준점수가  
더 낮아져요. 그리고 3개나 틀린 친구의 표준점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하죠.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교과의 어떤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들이 이때 활용하는 게  
뭐냐면 변환표준점수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앞에

강의에서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변환표준점수는요. 단순히  
난이도만 보는 게 아니라 백분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백분위로

기준으로 봐서 표준점수를요. 대학이 정해놓은 점수로  
바꿔놓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변화가 생기죠? 자기가 만점

맞은 친구입니다. 표준점수가 떨어졌었죠. 그런데 이걸  
변환표준점수로 바꾸면요. 백분위에 따라 표준점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표준점수가 올라가게 돼요. 반면에 백분위는 조금  
떨어지지만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표준점수가 높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백분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변환표준점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변환표준점수는 당연히 선택교과가 있는

탐구 과목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능 통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예요.

참고로 변환표준점수는 통지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걸요.  
누가 정한 거기 때문에?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통지표에는 나오지 않아요. 통지표에 나오는 건요. 등급과  
백분위와 표준점수 세 가지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분위기 자체는 수능이 오히려 점점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수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 영역에서 이용이

됩니다. 당연히 수능 100으로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  
정시에서는요. 당연히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성적 자체만으로

학생을 뽑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죠. 자, 문제는 전체  
퍼센티지로 나뉘었을 때 정시는 30% 정도만 선발하게 돼요.

반면에 나머지 70%는 수시 전형에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은

정시 쪽보다는 수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정시 수능 100인데?  
나는 수능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수시에 시험을 볼 거야라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시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능  
공부를 자연스럽게 놓게 돼요. 그런데 아시고 계실 겁니다.

수시에서도요. 수능 점수가 필요하죠. 왜? 수시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입니까? 수능최저라고 하는 등급이나 혹은 백분위를 활용한

수능 점수 활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제 교과  
전형이라든가 학종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이 수능최저가

활용이 됩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부분 대학들이  
백분위 특히 인서울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표준점수로 선발하게

되고요. 특히 인서울권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 중상위권  
이상입니다.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에

한해서 변환표준점수를요. 활용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수시입니다. 70%를 차지하는 수시. 이 중에서 교과, 학종,

논술 전형 중에 수능최저를 반영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선호도가 높은 인서울권의 상위 17개 대학.

이 대학들 중에 과연 어느 정도가 수능최저를요. 활용하고  
있을까요?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40.1%입니다.

자, 2020년이니까 지금 고3이죠. 지금 고3의 입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상위 17개 대학 중에, 수시 전형 중에 수능최저를

활용하는 비율은요. 40.1%입니다. 물론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능최저가 없는 건 60%네.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죠.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능최저가 없는 60%의 전형은 뭐가 세질까요?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수능최저가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가운데 무려 73.8%는요. 수능최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많은 친구들이

지원하는 전형인데 논술 전형도요. 마찬가지로 무려 71% 정도의  
학교가 수능최저를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부 종합

전형도요. 무려 22.5% 정도가 수능최저를 걸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율은 인서울 전체가 아니라 선호도가 높은 서울 시내 17개

대학입니다. 이 얘기는 뭐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들어왔을 때 꿈꿨었던 굉장히 좋은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다 뭐가 들어가더라? 이렇게 수능최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어떤 목표치가 이런 대학이

아니예요. 그런 대학이 아니라면 당연히 수능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1옵션이 아니죠. 수능은 좀 약간 치우고 나머지

교과라든가 아니면 학교생활에 치중하는 게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자기의 목표가 서울상위 17개

대학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능최저를 넘기지 못하면요. 교과가 아무리 좋고요. 학생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전형에 수능최저가 있잖아요. 통과 못합니다.  
수능최저는 기본적으로 1단계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앞에서 성적이 좋고 서류가 좋더라도 학교에서 내걸은  
수능최저를 넘지 못하잖아요. 이 학생은 바로 탈락입니다.

무조건 넘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수능최저,

수능이라고 하는 건요. 어디에 적용되냐? 보통 수시에서의

교과/논술/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용되잖아요. 이러한 수능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야지 교과와 논술과 학생부라고 하는 무기를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과가 1점대 극초반입니다. 글을 엄청나게 잘 써요. 그리고 학생부가 정말로 좋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친구가 지원한 전형이 수능최저가 있어요. 그런데 얼씨구나, 수능에서 실수하거나 평상시에 수능을

대비 안 하다가 수능최저를 받지 못하면 그 좋았던 내신 점수, 그 좋은 글쓰기 능력, 그 좋은 학생부네요. 무용지물 됩니다.

자기의 목표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혹은 지방에 있는 국립대라면 수능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수능최저가

있고 없고의 차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쟁률의 차이입니다. 수능최저가 있는 대학과 수능최저가 없는 대학 혹은 없는

전형은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능최저가 없는 대학들은요. 수능최저가 있는 전형의 2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하나. 수능최저가 있는 전형은 우리가 막 지원할 때 경쟁률을 보잖아요. 그 경쟁률보다 실제적인

경쟁률이 확 낮아져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강대에 있는 학종에 관련된 전형에 대한 겁니다.

자, 351명을 뽑아요. 서강대에서 그래서 이 351명을 뽑는데 전체 몇 명이 지원했냐면 6,497명이 지원합니다. 무려 경쟁률이

18:1이에요. 18.51:1이니까 거의 19:1입니다. 19:1인데 이 학생들이 만약에 수능최저를 넘었다. 즉 이 학생들 가운데

수능최저를 넘었던 학생들의 수. 이 정도로 급감하게 됩니다. 6,497명이 지원했는데 이 학생 중에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3,145명만이 수능최저를 넘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실질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18.5:1이 몇 대 몇으로 떨어져요? 8.9:1

즉 9:1로 확 줍니다. 거의 50% 정도가 discount 돼요. 이것도 굉장히 세죠. 그런데 수시건 정시건 뭐가 있어요? 최초합격이

있고 추가합격이 있죠. 항상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온 추가합격을 보셔야 돼요. 추가합격을

즉 충족률이라고 하는데 이 충족률을 반영한 실제적인 경쟁률은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돌잖아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 또

2바퀴 정도 도는데 돌았더니 최종적으로 추가합격까지 반영한 경쟁률을 보면 3.1:1로 확 줍니다. 무려 19:1에서 3:1로 줄어요.

1/6로 확 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수능최저의 위력입니다. 수능최저만 넘기면 실질적으로 뭐라고요? 그 전형은요. 3:1

수준으로 확 떨어져요. 이걸 서강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수능최저를 걸어놓은 보통 많은 대학들이 이래요. 왜냐하면

여기에 붙는 친구들이 다른 대학도 많이 붙습니다. 특히 수능최저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동해요. 이동하다 보니까

점점 아래에 있는 대학들은요. 충원율이 높아지게 되죠. 당연히 수능최저만 넘기면 경쟁률 자체가 실질적으로 확 줄어요. 좋은

학생부, 좋은 내신, 좋은 글쓰기 능력 좋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수능최저를 받지 못하면

그러한 것들은요. 확 날아가버려요. 더군다나 경쟁률 자체가 확 줄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됩니까?

수능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통 많은 일반고 친구들은요. 수능을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시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역을 다 공부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일반고 학생들은 보통 뭘 타깃으로 둬니까? 정시보다는 수시를 타깃으로 뒹요. 그렇죠? 그렇다면 수시를 타깃으로 두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목표가 뭘니까? 수능에서, 수능을 다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수능최저 영역을 넘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과목,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는 2과목이잖아요. 총 5과목인데 5과목을 모두 힘을 쓰긴

힘들어요. 사실상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전략적으로 5개의 교과 중에 자기의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즉 최저를 넘길

수 있는 교과를요.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이 과목이 2개예요. 최저가, 2개만 파는 친구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최저 들어가는 영역 자체가 2개라면 최소한

이 친구는요. 3개 교과를 준비하셔야 돼요. 2개 교과만 믿고 있다가 뒤에 설명하게 될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수능최저를

못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1교과 정도는요. 같이 수능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서울권 대학의

수능최저를 돌파를 목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에서 세 가지 영역 정도는요.

충분히 수능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수능이라고 하는 건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수능인데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자기의 바깥에 있는 어떤 외부의 영향 때문에 등급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 수능 준비를요. 많이 탄탄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수능의

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영어절대평가, 수능응시 인원의 감소, 선택교과에 따른 차이, 마지막 2022 수능

체제. 첫 번째 영어절대평가입니다. 이 영어절대평가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벌써 2번의 수능이

영어절대평가로 치러졌고요.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절대평가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었던

백분위와 표준점수는 사라집니다. 등급만 고지가 돼요. 등급만 고지된다는 게 뭡니까?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90점만

넘기면 1등급이고요. 80점만 넘기면 2등급입니다. 아까 상대평가 체제에서 뭘였어요? 자기가 점수가 아무리 많이 맞더라도 4%

안에 들지 못하면 1등급이 못 됩니다. 하지만 영어는 어때요? 철저하게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국어와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은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자기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친구가 얼마큼

공부하는지도 봐야 돼요. 그렇죠? 이 친구보다 더 많이 열심히 해야지만 이 친구보다 앞서 나갈 수 있으니깐 그래야지만 좋은

등급을 받잖아요. 하지만 절대평가는 다르죠. 옆에 애가 100점을 맞든, 0점을 맞든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 점수가 90점이

넘느냐, 80점이 넘느냐만 보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영어절대평가는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에

상대평가는요. 엄청난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N수생입니다. 보통 고3 올라가서 여태까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모든 시험이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동학년 친구들끼리의 경쟁이었어요. 그렇죠? 1학년 때, 2학년 때 똑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끼리 경쟁입니다. 그런데 3학년에 올라와도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6월 모의수능과 9월 모의수능 그리고

수능. 이 세 가지 수능에는 누가 들어와요? 졸업한 여러분들의 선배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N수생,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이런 선배들이요. 들어오게 됩니다. 이 친구들의 위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강한 친구들이죠. 내공이 장난 아닌

친구들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나요? 학생들이요. 우수한 학생들이 보통 재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전보다 성적이

많이 올라요. 물론 통계를 내보면 1점이라도 재수를 했을 때 성적이 오르는 경우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대요. 굉장히

적죠. 그런데 이 30%의 위력이 굉장히 셉니다. 왜냐하면 상위권에 이 30%가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

즉 N수생들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재학생들은요. 6월과 9월과 수능에 일반적인 학력평가 있죠? 이 등급보다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최소한 1등급에서 심지어 2, 3등급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 N수생 변수가 굉장히 큰데 영어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철저하게 누구와의 싸움이니까?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라고 하는 게 절대평가가 됐다는 거 자체가 어떤 변수 자체가 되긴 하지만 외부로부터 변수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영어절대평가 자체가 변수인 거지. 자기가 공부해서 등급을 따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변수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있다면 시험의 난이도 정도가 될 뿐인데 문제는

이 영어절대평가에 대한 수시와 정시의 전략이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이걸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영어절대평가는요. 기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왜? 하면

기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점수 매겨지니까 자, 작년 수능을 봤었던 친구들의 성적을 볼게요. 작년 수능을 봤던

3학년의 성적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그전에 고2 11월 때 학력평가 때 1등급은 6.98%가 나오고요. 2등급은 11.08%가

나옵니다. 또 3등급은요. 14.18%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이 정도 비율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고3이 됐을 때 처음 치렀던 3월달

평가에서 6%는요. 5% 떨어지고요. 2등급은 11%에서 10%로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3등급도요. 14%에서 13%로 떨어지게 돼요.

거의 대부분 다 2학년 때 봤었던 11월달 학력평가 점수보다 3월달, 고3 들어와서 첫 번째 봤었던 3월달 점수가 다

떨어집니다. 물론 난이도가 올라가긴 해요. 하지만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어 성적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

친구들이요. 굉장히 걱정하게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이제 2, 3등급 친구들은요. 올라요. 문제는

누구입니까? 1등급 친구들입니다. 1등급 친구들 중에 간당간당한 친구들 있어요. 96점 이상의 안정적인 1등급은요.

솔직히 안 떨어집니다. 이 친구들은요. 웬만해서는 1등급에서 안 내려와요. 96점 이상은, 문제는 90점부터 95점까지의

친구들이에요. 95점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운이 나빠서 2개 이상 틀리면 2등급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물론 이때 작년 6월달

모의평가 굉장히 극악의 난이도긴 했어요. 하지만 절대평가죠.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서 9월달 모의평가는 조금 쉽게

나왔어요. 오릅니다. 당연히 2, 3등급도 올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 3등급인 친구들은 영어가 목숨인 친구들이에요.

영어가 2등급, 3등급 나왔던 친구들은요. 굉장히 영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국어라든가 수학을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이 영어 2등급, 3등급 놓치기 아쉬운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끝까지 들고

갑니다. 들고 가다 보니까 어때요? 최종 수능에서 2등급과 3등급의 친구는 다 오릅니다. 퍼센티지가 비율이 늘어요. 그런데

어디가 떨어지죠? 1등급이 확 떨어집니다. 이 친구들은 뭐가 문제예요? 어, 영어 1등급이 나왔네. 그럼 이 친구들은

뭘 공부합니까? 영어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확 줄어요. 줄이고 국어 어려웠으니까 수학 그리고 전략 과목인

탐구 과목을 신경 써요.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비중을 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작년 수능에서 1등급 받은

학생들 비율이 5.3%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크죠? 이 영향 때문에 뭐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작년에 서울대 지균 지원자

중에 무려 40%가량이요. 수능최저를 못 맞추고 탈락하게 됩니다. 왜? 영어가요. 떨어졌어요. 떨어지다 보니까 국어, 수학,

국어도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국어랑 수학은 상대평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퍼센티지는 안 변해요.

즉 1등급과 2등급 맞는 학생 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든 쉽든 간에 그런데 영어는 어때요? 떨어지죠. 그 점수를

맞지 못하면 등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특히 1등급인 친구들 특히 90~95점인 친구들은요. 영어 공부량 줄이시면 안 됩니다.

난이도가 수능에서 올라가게 되면 피 봐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1등급을 받겠다라고 생각했던 영어도 1등급 못 받으네요.

상대평가인 국어와 수학은 더 떨어집니다. 상대평가는 줄 세우기니까 실수하면 툭 떨어지잖아요. 수능최저 못 맞춥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1등급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량 줄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리진 않더라도 여태까지 해왔던

영어 공부량은 줄이시면 안 됩니다. 줄이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나와요. 그런데 영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면 오릅니다. 특히

2, 3등급인 친구들 2등급 맞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3등급 맞은 친구들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면 오릅니다.

2등급까지 당연히 절대평가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교과로 영어는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국어 2등급, 국어 3등급

정말 어렵습니다. 영어 2등급, 3등급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적 비율로 보잖아요. 누적 비율로요. 2등급은요.

몇 퍼센트예요? 무려 19%가 2등급이에요. 아까 몇 퍼센트까지가 2등급이었어요? 4, 7, 11%가 2등급인데 무려 영어는요. 누적

비율이 19%입니다. 3등급까지 가면요. 무려 근 40% 정도의 학생들이 뭘 받을 수 있어요? 영어 3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등급의 위력 굉장히 셉니다. 수능 최저에서요. 자, 당연히 국어랑 수학 비율보다 등급을 맞는 수가 더 많아요. 볼까요?

한번요. 자, 이게 작년 수능에서 각각의 1, 2, 3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의 수를 비교해본 겁니다. 자, 국어 극악의 난이도였지만

상대평가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아요. 이거 맞는 사람의 수는요. 그런데 영어 보세요. 정말로 어려웠다고 했었던 작년 수능

영어입니다. 완전 불수능이라고 했었던 영어인데 어때요? 국어 1등급보다 많습니다. 국어 2등급보다 영어 2등급이 4만 명이나

많아요. 거의 더블 스코어죠. 3등급도 보세요. 무려 3만 명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뭘니까? 철저하게 영어는 뭐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 최저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카드로 써야 되는 겁니다. 영어 2, 3등급 나오는구나. 국어

공부해야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국어, 수학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국어, 수학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과예요. 그런데 국어, 수학을 더 하기 위해서 영어의 공부를 줄인다? 뒤통수 맞기 딱 좋습니다. 특히 1등급인 친구

있죠? 안정적인 1등급은 괜찮습니다. 96점인 친구들은요. 공부의 양 줄여도 이게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1등급 나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었던 90~95 사이의 1등급인 친구들. 나는 계속 1등급이 나오네. 92점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한 번도

1등급을 떨어진 적이 없어. 이런 친구들이 수능 가서 떨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등급을 확신하지 마셔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등급이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떨어지면요. 점수 떨어지게 돼요. 점수 떨어지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등급 떨어집니다.

만에 하나 영어가 또 어렵게 나온다고 해봅시다. 망하는 거죠. 상대평가는요. 국어가 어렵든 수학이 어렵든 상관이 없어요. 왜?

등급 퍼센티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어는 어떻습니까? 등급이요. 퍼센티지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점수로 정해집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려우면요. 다 떨어집니다. 수능 최저 못 맞는 거예요. 영어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변동률이에요. 작년 이제 전체 고3 어떤 학력평가와 모의수능과 수능까지의 변동 폭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변동 폭이요.

심하죠. 우리나라 영어는요. 상대평가 시대 때도 똑같았는데 절대평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난이도 조절을 못합니다. 난이도

조절하잖아요. 하면 이렇게 쭉 나와야죠. 엄청 들쭉날쭉하죠. 작년 수능 25%였는데 13%, 16, 16, 12, 18, 14, 18, 2등급

볼까요? 19, 12, 10, 10, 13, 9, 14, 1등급 10, 5, 8, 4, 7, 7, 4, 5 그렇죠? 특히 아래 등급으로 갈수록 1%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난이도 맞추기 힘들니다. 수준이 매 시험마다 달라져요.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맞고 있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영어 등급 절대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수학과 영어랑은 달라요. 개네는 상대평가니까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난이도의 영향을 그대로 맞는 거예요. 국어랑 수학은 왜 난이도 영향을 안 받는지 아세요? 내가 틀리면요.

다른 친구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틀리면 어때요?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비율은 똑같잖아요. 그럼

등급은 안 바뀌죠. 그런데 영어는 어때요? 재가, 옆에 친구가 맞건 틀리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틀려요. 등급 떨어집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굉장히 등급에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 절대평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뭐니까? 수시에서의 영어 절대평가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정시에서는 좀 달라요. 정시는 기본 점수를

줘버립니다. 왜냐하면 정시는 뭐로 가요? 백분위나 표준점수를 보통 합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나오니까? 등급만 나옵니다. 등급만 나오다 보니까 더군다나 사람의 수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대학들이요.

이 영어를 굉장히 고민해요. 고민한 결과 많은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대학마다 이 영어의 비중이 들쭉날쭉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 볼까요? 0.5 차이밖에 안 줘요. 1등급 차이에, 반면에 연대 같은 경우는 5점, 2에서 3등급은 거의 8점 이상 나죠.

서강대 같은 경우 1점씩밖에 안 줍니다. 이대는데요. 2점씩 줘요. 반면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8점. 굉장히 좀 크죠. 인하대 같은

경우 5점, 숭실대 4점, 여기는 6점, 동국대는 2점, 2점, 숙명여대는 5점, 10점 줍니다. 대학마다 영어에 대한 비중을

큰 대학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영어의 비중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학마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점수 차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는요. 특히 인서울권 가는 친구들은 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못해도 2등급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고 가야 합니다. 정시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걸요.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되는 점수죠. 영어는 일종의 뭐로 보시면 돼요? 출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점수기 때문에 출발선을

내가 남들보다 같이 출발하느냐? 뒤에서 출발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정시는요. 이 합격이요. 굉장히 좁습니다. 예전에도

좁았는데 영어가 절대평가화 되면서 이 합격 극간이 통째로 사라져버려요. 예전에는 굉장히 1점부터 100까지 굉장히

촘촘하게 있었는데 굉장히 비중이 컸었던 영어가 절대평가화 되면서 표준점수라든가 영어 백분위 점수가 빠져나가죠. 그럼

결국에는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교과로만 결정을 해야 돼요. 4과목으로 결정했었던 정시가 3과목 점수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합격자들의 극간 차이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 좁은 역할 누가 결정적인 역할 할 수 있어요?

절대평가 영어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요. 절대평가입니다. 기회임과 동시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요.

엄청나게 세계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커다란 변수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 영어절대평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능응시 인원의 감소예요. 제가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지금 점점 학생 수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현고3, 현고2, 현고1, 내년에 고등학생이 될 현중3. 6만 명, 5만 명, 4만 명, 만 7천 명 정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과 4년 사이에 거의 16만 명 정도가 사라져요. 기본적으로 전체 학생 수가 줄니다. 이거에 더불어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 수가 그대로 반영되는 수능 응시인원 있죠. 당연히 전체 수능 응시인원은 주는데 여기에 또 어떠한

변수가 생기느냐? 수능 최저가 없는 수시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60% 정도 됐잖아요. 아까요. 여기에 합격한

친구들이 수능을 안 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한 7~8% 정도 됐던 게 재작년 수능부터 10%를 넘게

돼요. 작년도요. 만약에 10.9% 거의 11% 정도 친구들이요. 수능을 보러 가지 않습니다. 매년 이렇게 학생들의 수가 무려

얼마 정도 하죠? 10% 이상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들 중에 10% 정도가 또 빠져나가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수능 응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거예요. 자기가 작년에 똑같은 등수를 맞더라도

전체 모집단이 줄잖아요. 분모가 줄니다. 주니까 어떻게 돼요? 등급이 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N수생은 괜찮아요. 왜?

N수생은 수능 공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수능 때 생각보다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재학생들은요.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 학생수 감소와 수능미응시로 인한 타격이요. 재학생들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질적으로 재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재학생 특히 1학년들 2015

개정교육과정이잖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었죠. 굉장히 학생부 자체는 굉장히 튼실해지지만 이와

반대로 수능에서는 굉장히 약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응시인원 감소 굉장히 커다란

변수로 작용될 겁니다. 그다음에 늘 있어왔던 거예요. 선택교과에 따른 차이입니다. 사탐과 과탐. 보통 선택 과목에

따라 지원을 하는데 사탐 과목 보세요. 생활과 윤리는 무려 61% 친구들이칩니다. 보통 택2니까 그다음으로 사회문화를 56%를

쳐요. 이 2개가 거의 뭐 대다수 다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한국지리 25% 정도 차지하고요. 세계지리 15%, 윤리와 사상

12%, 법과 정치, 지금 정치와 법으로 바뀌었어요. 정치와 법 10%, 동아시아사 9.6%, 세계사 7%, 경제 2%입니다. 지원자가

굉장히 극과 극이죠. 이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등급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많을수록 등급 따기가 편하잖아요.

많아지니까 반면에 경제. 나 경제가 너무 좋아. 그런데 5천 명밖에 안 보잖아요. 1등급 따기가 얼마나 힘들니까?

16만 명에서 1등급 따는 거 4% 몇 명이에요? 거의 한 6천 명에 들면 돼요. 그런데 경제에서 4% 몇 명에 들어야 돼요? 200명

안에 들어야 됩니다. 200명 안에 드는 거랑 7천 명 안에 드는 거 어느 게 더 쉬워요? 7천 명이 더 쉽죠. 지원하는 교과에

따라서 등급 따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과탐은 다른 줄 아세요? 똑같아요. 과탐 지구과학과 생명과학 I 거의 2개가 짝 들어가죠.

그다음에 화학 I, 물리 I 그다음에 II 과목들 초토화죠. II 과목은 누구만 지원해요?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들만

지원합니다. 왜? 서울대가 필수로 거니까, 일반 친구들은요. 서울대 안 치는 친구들은 과학II 선택 안 해요. 거의 다 뭐

선택하느냐? 과학 I 만 선택합니다. 그중에서 어느 거? 좀 수월한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을 선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자기가 어떤 교과를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확 벌어지죠. 왜? 난이도도 다르고 지원자 수도 달라지니까 등급도 굉장히

격차가 나고요. 똑같은 만점을 받은 친구라 할지라도 뭐가 벌어집니까? 표준점수의 차이가 벌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만

있는 건 아니에요. 탐구교과는요. 앞에서 나왔었던 국어 말고 수학과 영어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국어라든가 국어는

뭐 한국어니까 우리말이니까 다 공부해요. 다 공부하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영어랑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렇죠? 수학은 굉장히 많은 친구가 어려워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라고 하는

커다란 장벽이 있어요. 이 2개 때문에 수학과 영어를 하위권 친구들은 고3 때 와서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탐구

경우에는 어때요? 거의 대부분 다 암기 과목이죠. 특히 아까 선호도가 높았던 교과들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암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과목이 인기가 많은데 그런 인기가 많은 이유는 자기가 들어가서 1년 동안 그 과목만

파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위권과 상위권이 정말로 직접 대결하는 영역이 이 탐구 영역입니다. 국어라든가 수학과 영어는 중위권과 상위권의

격차가 커요. 실제로 붙으면요. 상위권이 대부분 다 이깁니다. 기본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탐구교과는 다릅니다.

탐구교과는 중위권 친구들도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바꿔 얘기하면 국영수 1등급 받는 친구들이

이 탐구교과에서 운이 나쁠 경우에는 3, 4등급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의 증거가 뭘 줄 아세요? 1등급 컷입니다.

생활과 윤리 1등급 몇 점 맞아야 되는지 아세요? 50점 맞아야 돼요. 2등급 컷은 47이예요. 3점짜리 하나 틀리면 2등급입니다.

2개 틀리면요. 3등급으로 떨어져요. 사회문화 47점이 1등급이죠. 그런데 2등급이 46이예요. 3점짜리 하나 틀리면 1등급인데

2점짜리 2개 틀리면 2등급이예요. 그런데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틀려서 5점 깎이잖아요. 바로 3등급 떨어집니다.

한국지리 50, 47, 세계지리 보세요. 50점인데 똑같이 한 문제 틀려도 3점짜리 틀리잖아요. 바로 3등급으로 떨어집니다. 하나

차이예요. 특히 하나는 뭐가 결정합니까? 실수로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마킹 잘못하거나. 그렇죠? 자기의 실력보다는 실수로

인한 등급 하락이 굉장히 큰 게 어디예요? 탐구교과예요. 과학 보실까요? 과학도 마찬가지로요. 물론 과학은 사회보다는 좀

덜 하죠. 왜? 과학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똑같죠. 개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화학 I

같은 경우 보세요. 46, 44입니다.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확 바뀌어요. 그렇죠? 두 문제 더 틀리잖아요. 3등급으로

떨어집니다. 물리 경우도 마찬가지죠. II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또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탐구 영역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고3 때 탐구 영역에 올인을 하는데 그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대학이 뭘 도입한다고요? 변환표준점수를 도입하죠. 난이도에 따른 어떤

표준점수 차가 나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백분위는 사용합니다. 백분위는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달랐었던 표준점수가 대학에서 백분위를 기준으로 짝 맞춥니다. 문제는 뭐야? 이 변환표준점수가 여기는 다 동일하게 성적표에

나오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런데 변환표준점수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대학마다 변환표준점수가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 대학에 붙을 수 있는 친구가 이 대학에 가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대학에 떨어졌던 친구가 이 대학에 가면 붙을

수도 있어요. 즉 서울대 붙을 수 있는 친구가 이거보다 좀 아래에 있는 대학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연대나 고대 가면

떨어지는 경우가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는 합격했는데 정시에, 연대나 고대 떨어진 친구들 변환표준점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변수가 크죠. 대학마다 다르고요. 애네는요. 성적표가 나와야지만 대학들이 변환표준점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처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정시에서의 합격선이 굉장히 폭이 좁아지는데

변환표준점수까지 들어가버리니까 수시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변수가 그리고 불확실성이 더 큰 게 정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변수입니다. 2022 수능 체제예요. 언제죠? 고1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수능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만으로도 굉장히 수능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따기에 힘든 변수인데 2022 수능 체제는요.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혼란을 주는 요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뭐예요? 국어랑 수학에 뭐가 등장합니까? 선택교과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전에는 국어만 봤어요. 그렇죠? 수학은 문과, 이과만 나눠서 수학 나, 수학 가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일했었던 교과가 공통 문제가 들어가고요. 이것을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로 쪼갭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수학

같은 경우 더 심해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와 벡터로 3개로 쪼갭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고2까지는 사탐 무조건 2개, 과탐 2개예요. 따로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1부터는 어떻게 돼요? 사탐

2개, 과탐 2개 해도 되고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해도 돼요. 변수가 더 커지죠. 조합을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어요. 당연히 이전에 탐구교과에서 벌어졌었던 문제가 국어와 수학에서도 벌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인문계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이 없어요. 인문계는 대학에서 선정할 때 사탐 해도 되고 과탐 해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공계예요. 이공계에서 필요한 교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학 보세요. 수학은 확률과 통계, 보통 문과가 많이 선택을 하는

교과고요. 미적분과 기하와 벡터는 이공계가 선택하는 건데 과연 이공계 대학들이 특히 공대가 확률과 통계를 인정할

거냐는 거죠. 수학 과목으로. 마찬가지로 탐구 영역에서 사탐 2개를 선택했었던 인문계 학생들을 이공계 대학들이 애네를

인정할 거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인정 안 하겠죠. 특히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공계 수학은요. 미적분과

기하와 벡터 요구할 거예요. 탐구, 확통 받지 않을 겁니다. 탐구 분명히 과학탐구 무조건 포함되게 할 거예요. 문제는 이걸 1개

할 거냐, 2개 할 거냐의 문제인데 문제는 상위권 대학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갈 거예요. 중위권 아래

대학입니다. 점점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밑에 대학들은 굉장히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 자체가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공계 대학들이 우리는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와 벡터만 할 거고 탐구는 과학 영역만 한 애들만 올 수 있어. 이거

상위권 대학 얘기입니다. 중위권 아래의 대학들은 이렇게 못해요. 받는 게 급한데 거의 이런 대학들이 이공계에서

풀 겁니다. 확률과 통계 오케이 할 거고요. 사탐 2개 오케이 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통 이공계와

인문계 비교했을 때 이런 얘기해서 뭐하긴 하지만 이공계 학생들이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죠? 현실이잖아요.

이 학생들이 자기의 영역인 미적분과 기하와 벡터, 과탐에서 노는 게 아니라 확률과 통계로 올 수도 있고요. 사탐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타격을 받아요? 확률과 통계에서 상위권에 있었던 친구들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공계에 들어오니까 사탐에서 굉장히 치열한데 여기에 이공계  
녀석들까지 오게 되면 인문계는 그야말로 뭐가 벌어집니까?

정말로 엄청난 경쟁 체제가 벌어질 거예요. 특히 이전까지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따라서 탐구교과 하나를

대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2외국어가 이제부터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절대평가로 바뀐 이 교과를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탐구 영역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꾸죠. 당연히  
제2외국어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학에서 어떠한 반영의

의지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국어와 수학, 선택교과 생기잖아요. 선택교과 생긴다는 것은

교과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점수가 달라져요. 표준점수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대학이 뭘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그 교과에

대해서 변환표준점수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변수가  
더 커져요. 변환표준점수는 대학이 발표하기 전까지 모릅니다.

대응이 안 돼요. 수험생들이 발표를 해야지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발표하지도 않은 변환표준점수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못 돌리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 고1 친구들은요. 수능에서의

변수가 너무 많아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은 해야  
됩니다. 특히 1학년은요. 수능 굉장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악화된다는 게 수능이 쉬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수능에 대한 체감도가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선배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수능

문제를 푼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지금 세대  
자체가 학교에서 문제풀이 수업보다는 토론과 탐구와 보고서

활동, 프로젝트 활동, 독서 활동을 강조한 세대입니다.  
좋은 방향이죠. 그런데 문제는 수능에 최적화된 교육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수능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에 있지 않다 보니까 수능 체감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수능의 위력은 더 커질 겁니다. 특히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왜? 수능의 파워는  
상대적으로 더 커질 거기 때문에 특히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겠지만 수능 필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학년 때부터 수능 문제 풀라는 거 아니에요. 1학년 때는

무조건 기초 탄탄입니다. 수학 기초 탄탄, 영어 기초 탄탄,  
국어는 비문학 완전히 많이 해두셔야 돼요. 2학년 때 가서

비로소 그때부터 수능 문제를 조금씩 풀기 시작하고 3학년 때  
자소서 쓰고 학생부 활동하고 내신 준비하느라 바쁘겠지만 수능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리한

환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수능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수능 공부하기 진짜  
힘듭니다. 특히 1학년 수능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단언컨대 수능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왜? 지금의  
학교는요. 조용하게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나마 가장

조용했었던 수업 시간이 이제네요. 시끌벅적하고 친구들  
돌아다니고 조별 학습하고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친구들과

토론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조용히 공부해서 올릴  
수 있는 수능?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능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시면 고3 때 분명히 좋은 위치에서  
좀 더 유리하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3강. 수능의 위력 알아보지 마라. 상위권 친구들 수능의  
중요성 정말로 크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며

3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